

통일특집
기획인터뷰

동질성 회복, 통일의 시금석

— 통일문제 연구소장 백기완 선생을 만나

통일은 어느 한쪽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민족 7천만 겨레의 소원임을 감안할때, 이를 이루어내기위한 방법적논의는 큰 의의를 가지지 않을수 없다.
이에 본보는 지령 1천호를 맞이하여 통일 특집 기획의 일환으로 통일문제 연구소장인 백기완선생을 만나 통일운동을 바라 보는 입장과, 다가올 대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통일운동과 다가올 대선을 바라보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註)

▲임:이런 대답은 저희 대학주 보가 지령 1천호 특집신문을 발간하는데 있어 민족의 영원인 통일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우선,기간에 전개되어 왔던 통일운동의 발전 경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통일운동이라 하는것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우리나라를 두동강 낸 데에 대해 우리민족이 올바른 삶의 획득과 이를 위한 민족해방의 일환으로 제국주의와 대립하여 민족의 해방과 통일을 쟁취하는 역사의 주체적 움직임입니다. 이에 우리 통일운동은 초기 일본제국주의와 싸운 항일세력을 중심으로 미국의 한반도 분할지배에 대한 반대운동을 기점으로 근대에는 분단의 현실로부터 집중적 피해를 받는 민중계급을 해방시키는 해방통일운동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그렇다면 기간의 통일운동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여기에서 나타난 오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성공적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통일운동을 통해 분단의 역사가 비로 미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였음을 여러 계층에 인식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왜곡된 교육과정에서 결코 짚어주지 않았던 부분을 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노태우 군사정부가 통일문제를 거론하는 그 본질에 대한 효과적인 폭로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임:올해 통일운동이 전개해 나갈 방향성에 대해 제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앞에서 언급했듯이 올해의 통일운동 방향은 분단 상황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집중적 압박을 받는 노동자, 농민을 해방하는데 역점을 두어야겠습니다. 민중해방을 통일운동의 실제로 정확하게 자리매김하여 통일운동의 핵심으로 세워야 합니다.이에 현실적인 선결과제는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라 할수 있습니다.통일 운동의 자유를 쟁취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요,그리고 통제와 탄압으로 남북에서는 결성되지 못했던 범민련을 이전 어떤 탄압이 있어도 꼭 조직해야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인류의 보편적 영원인 같이 일하고 같이 잘살자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운동은 이런 세계적 기운에 따라 보편적 연원을 실천적으로 재조직해 내야겠다고 봅니다. 또 남북합의서 내용에 대해 말했는데 내가 보기엔 남북합의서가 너무 미진합니다. 우선 경제적, 정치적 항목에서 두드러지는데 현



말이 갖는 반민족성을 설명해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문제란 민족이 주도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인양 북방정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통일문제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통일운동은 더 더욱 탄압·억압되어버린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 대표적 예를 들자면 민족의 대추제인 88올림픽이 남·북한 공동으로 열리지 못하고 개최되었습니다. 이러므로써 남·북한 이질감의 심화에 6공화국이 결정적 역할을 한것이라 할수있을 것입니다.
▲임:제도권에서 내세우는 통일에 대한 환상과 이에 대비해

를 위해 국가보안법철폐, 전두환 일당을 구속처벌하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립정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야당후보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암암씨와 만나서 우리 셋중에 하나로 민중후보를 통합하고자 제의했는데 이때도 한 야당후보의 거절로 3명이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보통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87대선은 노태우씨의 확연한 부정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민중운동을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를 주도하지 못한 재야인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정선거가 반드시 행해질텐데 이걸 막으려면 선거환상에 빠져서는 절대안됩니다. 설사 선거를 하더라도 노태우군사독재에 짓밟힌 민중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덕적, 정치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민중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87년 민중후보였던 나의 경험에 비추어 말하고 싶습니다.

▲임:민중후보추대위원회결성에 대하여 논의를 전국연합측과 함께 논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임:민중후보추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입니다. 각 노동자는 노동조합에서 시민도 시민단체로 일어서야 하며 전국연합에서도 민중후보추대위원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왜냐하면 살인마 노태우가 또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 하고있고 또한 대통령후보도 30년동안 대통령후보만하는 사기꾼들대로 후보로 나올 것이고 심지어 약력기업주의의 상징인 정주영씨도 대통령하려하는데 민중은 표표를 못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것입니까? 그러므로 전국연합에서 민중후보추대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한 앞으로 전국연합이 하는 일에 적극 지원할 뿐더러 학생들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임:현시기 정경화 되고 있는 민주대연합과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하려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이런 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주의 세력이 민중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은 자신의 실체를 정치투쟁의 수준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야당만 밀어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정치 허무주의자의 자기상실주의라고 봅니다. 모든 운동의 발전은 운동권 몇사람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국회의원이되는 것이 아니라 노태우 군사독재로부터 집중적 억압을 받는 민중이 자기 해방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자기자신의 정치조직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운동의 자유 쟁취해야 대선위한 민중후보 추대 위원회 건설시급

재 한국경제는 통일을 이룰 만한 자주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한국경제로 통일이 된다면 전한반도가 미국과 일본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남북합의서에는 외래독점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을 위한 민족의 연원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인데 남북합의서에 기록된 부분을 전부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 그 성격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같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세가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반도의 비핵지대화, 한반도의 외국군사동맹폐지, 한반도의 비군사지대화를 전세계에서 전쟁요인과 싸우는 이들의 나라, 전위의 나라, 즉 맨 앞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

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첫째 우리민족의 문화, 삶의 실질을 파괴하고 있는 상업주의 문화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상업주의 문화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것만이 실질적인 남·북 동질성이 회복될 수있고, 둘째 싸우는 방법은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재창조함으로써 상업주의문화와 싸우는 무기로 삼아야합니다. 이 문제는 한 두마디의 말로써 끝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구하여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야기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나름대로 6공화국 북방정책을 설명하신다면?

을 지를수 있는 민중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87년 대선에서의 쓰러진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4천만 국민의 가슴에 민주정부 수립의 희망을 제시해 줄수 있었습니까?
▲임:내가 그때 민중후보로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중이 중심이 되어 노태우군사독재와 싸우는 민중을 하나로 연대 시키고 또 단순히 선거를 통해 노태우군사독재를 무너뜨리려는 선거혁명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선거라는 공식공간을 통한 우리국민이 자신의 정치적요구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정치적·도덕적계기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후보로 나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모든 세력연대

EsseSS

프로스트는 가지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詩로 이야기했다. 인생은, 연습삼아
한번 살아보고 싶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걸어갈 길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오늘도 나의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오직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추후의 후회도 없는 길을 선택하고 싶다.
나의 발걸음이 가장 잘 어울리는 길—
그것을 개성이라 이야기해도 좋다.
어차피 개성이란 것이 내가 사는
이 시대의 본질일테니까...
다른 사람의 사는 방식을 존중하는 만큼
내가 사는 삶의 방식도 존중해야겠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경청하는 만큼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소리도 경청해야겠다.
나에게 있어 이 세상의 구심점은 나 자신—
가장 나답게 살고싶다. 에스까뜨릴처럼...
지금, 나는 에스까뜨릴길을 걷고 있다.

자기관각을 지켜가는 패션정장
ESCADRILLE

「축」 창간 37주년 지령 1000호

ESCADRILLE
ESCADRILLE
ESCADRILLE
ESCADRILLE